



정도회 만일결사가 7700일에 접어들었다. 정도회는 93년 10000일을 목표로 결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4일 원광대 체육관에서 열린 입재식 장면.



신규 입재자들이 법사들로부터 염주를 선물 받고 있다.



이번 만일결사 회향 및 입재식에는 2천 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는 참가자.

‘나’ 돌이켜 참회하면 세상도 밝아지죠

정도회 '만일결사' 7700일 입재...4일 익산 원광대서

#배우 차중호 씨의 삶은 고달팠다. 오디션 을 봐도 합격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극단 섹배에게는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기도 했다. 그에게 세상은 온통 배신과 불신의 도가니였다. 그러던 어느날 차 씨는 불법을 알게 됐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108 배 기도를 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단역 배우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는다. 작은 역할이라도 들어오면 감사히 기꺼이 최선을 다해 일한다. 또, 감독들에게 연락이 없어도 초조해하지 않는다. 마음 좋으며 에너지를 낭비하느니 그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며 잘 쓰이는 곳을 찾아다닌다. 이제 그는 단역 배우 차중호를 넘어 세상에 잘 쓰이는 사람 차중호가 되어 있었다.

#주부 김명희 씨(가명)는 권위적인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 가정 살림 하나하나에 참견하며 잔소리를 하는 남편 때문에 결실 수가 없었다. 더 이상 그와는 살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4년을 남게 이어온 기도 덕분이다. 나를 낮추고 남편을 이해하니 세상이 달라졌다. 이제 남을 닮고 원망하기 보다는 모든 문제를 나에게 돌이켜 참회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됐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함께 수행을 시작했다. 이제 둘은 동반이 되어 기도하고 봉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정도회 만일결사 수행자 '정도행자'라는 점이다. 정도행자는 매일 아침 참회문 독송-108배기도-10분명상-경전읽기를 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일 1선행 1000원 이상의 보시를 통해 세상의 나눔을 실천한다. 또 이 기도는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세상에 회향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만일결사는 정도회를 이끄는 핵심 프로그램이다. 개인의 변화를 통해 사회를 이끌고자 하는 정도회 만일결사가 7천 7백일에 접어들었다. 10000일을 목표로 지난 93년 시작된 기도는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이후 만일을 1000일 단위로 나누고 다시 이를 100일로 쪼개서 입재와 회향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단위를 어떻게 나누든 간에 이 기도는 30년 10000일을 목표로 하며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11월 4일 전북 익산 원광대 체육관에서 열린 만일결사 회향 및 입재식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비오는 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에서 모여든 정도행자들은 행사장 입구로 들어서며 도반들과 인사를 나누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

행사는 오전 회향식, 오후 입재식으로 크게 나뉜다. 100일마다 한번 씩 모여 수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100일을 약속하는 자리가 바로 만일결사다.

회향식이 시작됐다. 천수경 봉독 후 전국 지역 법당에서 모인 도반들을 소개하고 지난 100일간 정도회 및 산하 단체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에 밀가루 500톤을 지원한 국제구호단체 JTS, 현재 300강을 목표로 즉문즉설을 진행중인 평화재단의 회향세상 만들기과 매주 12회 회향콘서트, 가을불교대 졸업식 등의 소식이 소개됐다.

이후 만일결사자의 수행담 발표가 이어

93년 만일 정진 발원하며 시작 100일마다 입재 회향 '수행점검'

졌다. 수행담 발표는 그동안 수행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변화를 발표하는 시간이다. 특히, 김영순 보살(가명)의 수행담은 감동적이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남편과 딸을 이해하고 과거 부모님을 원망했던 자신, 아직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현재의 모습을 돌아왔다고 했다. 김보살이 수행담을 읽는 동안 참석자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르지만 그녀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는 듯했고 그 애절한 기도가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도회 지도법사 범륜 스님은 "우리는 윤회의 사슬에 얽혀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부처님 법 만나서 스스로 돌아보고 부모를 원망한 시간을 누우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기도를 해서 천금을 받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부처님 법 만나 한 생각 일으키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그것이 곧 기쁘다"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회향법문을 통해 늘 기도 정진하며 자신을 돌아볼 것을 강조했다.

"어떤 사람이 황아에서 코끼리를 만났어요. 이를 피하려다 줄을 잡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니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아래

108배와 명상 등 정진 다짐 개인변화가 사회변화 이끌어

를 내려다보니 독사가 있고 위로는 흰쥐 검은 쥐가 자기가 잡은 줄을 끊어 먹고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위쪽에서 벌집이 있어 꿀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달콤한 꿀이 입 안으로 들어가니 잠시 공포를 잊는 거죠. 우리네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이 달콤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탁 뜨면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독사 쥐 코끼리 이런 거 잡아주기를 원하면 안 돼요. 꿈에서 깨어나면 돼요"

스님은 세상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없으며 스스로 수행정진해서 괴로움

을 없애야 한다고 전한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어두운 길에 햇불을 본 것처럼 그렇게 법을 기준삼아 스스로 수행정진하면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매일 매일의 정진을 통해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스스로 행복해야 되고 나의 행복에 그치지 말고 불법을 이웃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의 정진을 되살려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회향 법문이 끝나자 포살법회를 통해 100일 동안의 수행을 점검하며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12시 30분, 이제 각자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오랜만에 본 도반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행사장 주변 입구는 정도회 산하 단체인 JTS, 정도수련원, 평화재단 등이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설명하는 부스를 마련했다. 비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소속 단체 봉사자들은 자신들의 활동 사항을 설명하며 동참을 구했다.

그렇게 오후 2시가 되자 215명의 신규 입재자가 새롭게 정진을 다짐하는 입재식을 가졌다. 입재자들은 매일 기도와 생활속에서 늘 이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한 후 법사들로부터 염주를 선물 받았다.

스님은 입재 법문을 통해 "지금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지나간 삶의 업, 카르마다. 내가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자유를 얻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업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매일 매일 기도 정진하자. 진정한 자유는 자기의

업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며 기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통일을 염원하는 정도수련원 100일 출가 행자들의 노래 공연을 끝으로 일정은 마무리됐다. 정도행자들은 이제 다시 100일을 약속하며 각자 받은 수행일지와 경전 독송집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

4년째 수행중인 정여진 씨는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일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내일 출근이 두렵거나 피곤해서 (만일결사에)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늘 여기에 오면 새로운 힘을 얻고 정진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나를 낮추는 참회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좀더 세상에 잘 쓰이는 삶을 발원한다. 수행도 발원도 모든 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노력하는 삶을 살 수는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다"며 소감을 전했다.

익산 원광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00일마다 새롭게 받는 정도회 수행일지와 경전. 수행은 매일 아침 새벽 5시 기상-참회문 낭독-108배-10분 명상-경전독송을 원칙으로 한다.

www.minjoksa.org

경전 강의시리즈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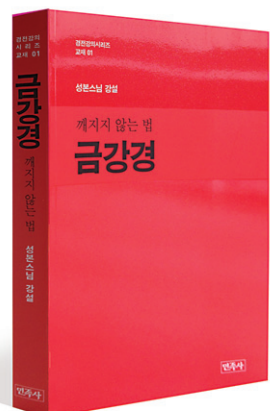
그동안 수많은 불자들에게 영원이었던 본격적인 강의의 교재

- 경전강의시리즈는 다른 책과 다릅니다.
1. 대학수·대강백·스님들의 경전 강의 내용을 한 권의 책에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2. 경전 원문과 그 독음, 번역, 강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어려운 한자를 글라너, 그 독음과 뜻을 원문 바로 옆에 달았습니다.
 4. 경전 강의를 들으며 직접 필필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5. 한 권만 있으면 다른 보충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6. 경전 강의를 하려는 선생님께, 경전 강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재용으로 적합합니다.
 7. 실용장제책을 하여 360°로 파악 필필 수 있습니다.

교재 01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

472쪽 | 25,000원



대학생이신 성본스님의 금강경 강의!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중생심을 끊어버리고 타파하는 경전이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교재 02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624쪽 | 28,000원



대강백이신 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의!

유마경은 출가 중심의 편협하고 왜곡된 불교를 철저히 비판하여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다.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헤엄치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왕초보 한문 박사되다

김형중 지음 | 288쪽 | 12,000원



불교 한문 초보자를 위한 맞춤 도서

1. 최초의 불교 한문 공부 교재
2. 해석 방법과 문법 소개
3. 경전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소개함
4.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는 한문, 이제 글자로 보인다!

민주사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빌라 1131호 Tel. 02732-2403, 240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동업 053-02-109450 (매곡주. 윤재승)